창간정신
1. 영생대도의 실천
2. 영생학의 보급
3. 영생문화의 창달

승리신문

자유율법
주님을 초초로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라. 나라는 존재의식을 초초로 죽이고 짓이겨라. 형제의 죄를 내 죄로 여겨라. 인류는 한몸 누구든지 내몸처럼 여겨라.

1985년 1월 18일 창간 隔週刊 제 692호 The Seungni Shinmun 2015년 8월 1일 토요일

경축 제 85회 성탄절

생명양식을 가지고 오신 구세주

바꾸자!

우리는 인류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줄 누군가를 기다린다. 이 세상은 너무 엉망진창이다. 진실이 거짓 앞에서 매장되고, 거짓말이 진리인양 득세한다. 기득권자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대의(大義) 앞에서도 내려놓지 않고 자기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앞세운다. 극소수의 가진 자들이 자신의 보다 더 큰 이익을 위해 배고픈 자들을 돕지 않는다. 범죄는 갈수록 고도로 지능화 되고, 흉포해진다. 정의는 땅에 떨어졌고 오직 자신의 이익만 눈앞에 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을 뒤집기를 원한다. 누구나 다 잘 사는 세상, 평등과 자유를 진정으로 누리는 세상, 서로서로 존경하며 아끼고 감사하며 사는 행복한 세상으로 바꾸고 싶다. 어떡하면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대통령을 잘 뽑으면 될까? 국회의원이나 시장을 새로운 인물로 뽑으면 될까? 그럴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진정한 주체는 그들이 아니라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인류의 어버이, 구세주께서는 잃어버린 당신의 자식을 찾으러 이 땅에 오셨다

인류가 당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구세주

성탄절! 거룩한 날이다. 왜? 인류의 진정한 구세주가 태어나신 날이기 때문이다. 음력으로 양(羊)의 달(6월) 별의 날(28일)이요 양력으로 8월하고도 열두 번째 날이다. 구세주라고 하면 일반인들은 구세주가 단지 사람을 구원하는 존재라고만 막연히 생각한다. 더욱이 기성 종교인들이 믿고 있는 구원의 주체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영혼을 구원하는 분을 구세주라고 믿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구세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

구세주를 딱 한 마디로 정의한다면 우리 인류가 당면한 모든 문제, 즉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구세주만 나오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문제는 얼마나 걸리게 되는지 시간문제일 뿐이다. 예컨대 인류의 문제 중 가장 큰 것이 인구문제와 식량문제이다. 인류는 70억을 돌파할 시점이 멀지 않았고, 이에 따라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큰 과제가 되어 있다.

물론 이것은 전 인류적인 차원의 문제이지만 미시적으로 인간 개개인들을 봐도 먹고사는 문제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하루도 마음 편히 살 수 없다. 어떻게 보면 먹고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인류는 상당히 평화로운 세계를 구축할 수 있어 보인다. 구세주는 이러한 먹고사는 문제를 간단히 해결한다. 구세주는 이슬을 들고 나오는데 앞으로의 세계에서 인류는 이 이슬을 먹고서 생존하게 된다.

이슬이란 성경과 불경, 격암유록에서 말세의 주인공이 가지고 나오는 생명의 양식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이슬은 하나님의 신이다(호세아 14:5). 이슬(감로)은 죽지 않고 영생하게 하는 약이다(열반경). 이슬(감로해인)은 불로불사의 신약이다(격암유록).

인류의 생명양식, 이슬

이슬은 생명의 양식이다. 성경은 이슬이 양식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모세 시대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약 250만 대중들이 오직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고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이슬은 감추었던 만나라고 계시록(2:17)에서 예언함으로써 이슬만 먹고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또한 앞에서 경전의 각 구절을 인용한 것처럼 이슬은 사람을 죽지 않게 한다.

더 나아가 이슬은 사람을 현재와 같은 육신이 아닌 새로운 몸으로 변화시킨다. 그 몸은 날아다니는 몸으로서 양식을 먹지도 않는 몸이며 배설도 하지 않는 몸이다. 따라서 인간이 이와 같은 몸으로 변화가 된다면 인구문제, 식량문제, 환경문제, 에너지 문제, 평화와 자유 등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이처럼 구세주가 가지고 오신 이슬은 우리 인류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구세주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존재

조희성 선생이 구세주라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슬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으로 인정된다. 이슬은 시공과 영육을 자유로이 넘나드는 존재이다. 각 경전은 그 경전의 주인공의 증표로 이슬을 들고 있는 것이다. 즉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긴자 구세주에게 이슬로써 함께한다(호세아14:5)고 하였고, 불경은 미륵불은 감로를 들고 나온다(열반경 전체)고 하였으며, 격암유록의 주인공 정도령도 감로해인이 증표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처럼 각 종교로 나누어진 이 세계를 하나로 통일하는 주인공은 이슬을 그 증표로 한다. 전 세계 인류들은 이러한 이슬의 귀중성을 빨리 인식하여 진짜 구세주가 오셔서 이슬을 내리시어 만민을 구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빨리 알아야만 할 것이다.*

(이 글은 2012. 8.15. 승리신문 기사를 수정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김중천 기자

부산제단 이영자 총재 초청 예배

부산승리제단(김원찬 책임승사)은 19일 이영자 총재를 초청하여 예배를 보았다. 7월초에는 한 여름 날씨를 보였지만 최근 며칠간은 가을날씨와 같았는데 19일은 구름까지 많이 끼어 햇빛을 막아주어 더 시원한 날씨가 되었다.

김원찬 승사는 10시에 시작된 1부예배 비디오 말씀을 본부제단 말씀 비디오와 같은 말씀으로 미리 준비하는 배려 있는 센스를 보여주었고, 2부 특별 순서에서는 양용순 승사가 플루우트 독주를 하여 성도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

이후 이영자 총재는 "누구든지 내 몸처럼"을 외치며 인사로 말씀을 시작하였다. 이 총재는 "영생 길은 마라톤에 비유할 수 있다"면서 "마라톤 우승자에게 감람나무 잎으로 만든 월계관을 씌어주는데, 그 감람나무는 척박한 환경 특히 이슬이 자주 내리는 곳에서도 잘 자라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매우 소중한 나무로 취급한다"며 감람나무와 이슬성신의 관련성을 언급하였다. 또한 이 총재는 "이 세계와 우주 만물은 승리제단 성도님들의 변화 정도와 상태와 속도에 따라서 변한다"고 전제한 후 "자유율법을 적용하여 형제를 징계할 때에는 징계 받을 사람을 미워하거나 서운한 감정으로 차갑게 징계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몸처럼 이해하고 사정을 안타까워하며 연민을 가지는 따뜻한 사랑의 징계가 되어야 한다"고 사랑을 기반으로 한 징계를 강조하였다. *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64)

"생활 속에서 자신의 대상자를 사랑으로 이겨야"

가정에도 대상자가 있고 직장에도 대상자가 있다. 대상자가 바로 여러분의 남편이요, 부인인 것이다. 직장에 나가면 왠지 보기도 싫은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대상자인 것이다. 그 대상자를 이겨야 하는데 주먹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써 이겨야 하는 것이다.

진심으로 그 사람을 사랑해주며 그 사람이 저녁을 사라고 하면 저녁을 사주고 점심을 사달라면 점심을 사주면서 종의 종노릇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바로 그 사람을 이기게 되고 이긴자가 되는 것이다.

대상자는 많은 것이 아니다. 자신의 주위에 한두 명이 있는 것이다. 그렇듯 시기하고 질투하던 사람이 진심으로 여러분을 존경하고 좋아하게 될 때, 이긴 것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실제로 가정에서 이기고, 사회에서 이기고, 또 제단에 나와서도 이겨야 한다. 제단에도 대상자가 있는 것이다. 왜 그런지 보기만 하면 밥맛이 없는 사람이 있는 것이다. 그런 못마땅한 생각은 바로 나라는 마귀가 하는 것이다.*

구도의 길

영생의 도는 전도가 시작과 끝이다

영생의 도에 입문하여 이기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먼저 세상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한다. 나는 구세주를 만나서 영생 길을 가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사망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모습에 측은감이 올라오게 된다. 그 생각이 확장되면 영생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물에 빠져 죽어가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저절로 전도를 시작하게 된다.

전도를 하게 되면 전도 받는 사람의 죄가 자신에게 그대로 오염된다. 오염 받게 되면 영생의 은혜를 받기 전의 몸과 마음의 상태로 되돌아가 버린다. 그렇게 되면 구세주가 맞는지 의심이 올라오고, 음란마귀, 혈기마귀 등 이런저런 마귀들도 발동하게 된다.

그러한 마귀가 발동할 때에 그것을 이겨야 한다. 그 마귀를 이겨야만 전도가 성공을 하게 되지 그 마귀를 이기지 못하면 전도가 되지 않는다. 영생의 도는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도(道)가 자라게 된다. 한 사람을 전도하여 그 사람 속에 있는 마귀를 이기게 되면, 다른 사람을 전도하여 또 그 사람 마귀를 이기게 되고, 그리하여 수많은 사람을 전도하여 그 마귀를 이기게 되면 강한 영(靈)으로 이루어져서 결국은 영생의 도를 얻게 된다. 영생의 도는 전도로 시작하여 전도로 끝맺는다. 조희성 구세주님의 발자취를 더듬어 봐도 전도로 시작하여 전도로 완성이 되셨다. 전도하지 않으면서 영생만 얻을 생각하지 말라. 전도는 영생의 길을 감에 있어서 시작이자 끝이다. *

시민 초청 강연회

괴질을 이기고 살아 남는 법

메르스보다 치사율이 더 높은 전염병이 온다

노스트라다무스, 남사고 등 예언가 21세기 무서운 전염병 예언

장소: 승리제단 2층 강의실
일시: 2015년 8월7일 (금)오후 5시-7시
강사: 김종만 / 승리신문사장
전화: 032-343-9981(대표)
주최: 도서출판 해인